

#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와와의 융합적 관련성

윤성욱<sup>1\*</sup>, 성미애<sup>2</sup>

<sup>1</sup>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sup>2</sup>수성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e by Gender

Sung-Uk Yoon<sup>1\*</sup>, Mi-Ae Sung<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Suseo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의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상관성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직무만족은 금연에서 높고, 감정노동은 높은 연령이 낮았다. 이직의도는 35세 이상에서는 낮고 직원수가 11-20명, 흡연에서는 높았다. 여성인 경우 직무만족은 10년 이상 경력, 대학졸, 직원 수 20명 초과가 높았으며 감정노동은 높은 연령이 낮고 음주에서 높았다. 이직의도는 전문대졸, 미혼, 음주가 높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감정노동이-0.22배 적었으나 이직 의도는 3.9배로 높았다. 직원 수는 10명 이상이 2.7배로 높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고 감정노동과 이직의도를 줄이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것이다.

**주제어** : 감정노동, 직무만족, 이직의도, 치과위생사, 융합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elf-written questionnaire survey on the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gender of dental medical institutions. Job satisfaction was high smoking cessation, emotional labor was low age. Turnover intention was low in over 35 years old, number of employees was 11-20, was high in smoking. For women, job satisfaction was high 10 years experience, university, 20 employees. Emotional labor was low age, drinking. Intention to turnover was high in college, single, drinking. Men's emotional labor was 0.22 times less than women's, but their turnover intention was 3.9 times higher. The number of employees was 2.7 times higher than 10 employees. Therefore, efforts to raise job satisfaction and reduce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s should be made systematically in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s.

**Key Words:**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Dental hygienist, Convergence

### 1. 서론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의료 환경은 더욱 발달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다양

화로 남녀의 역할 구분도 그 의미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 남녀는 특성이 달라 직업에 있어서도 경찰, 군인, 소방관 등 독립적, 공격적, 활동적인 직업이 남성의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은 간호사, 교사,

\*Corresponding Author : Sung-Uk Yoon(sunguk3794@naver.com)

Received July 13,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August 17,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서비스직과 같은 의존적, 순종적, 감정적인 직업이 여성 직업이라고 인식되고 있어 직업에 대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2]. 그러나 최근 여성의 고유직업이라고 인식되던 간호사 직업에서 남성 간호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직업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3]. 과거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치과위생사도 2013년 면허등록 치과위생사 수 56,072명 중 여성 55,750명 남성 322명이었으며 2017년 총 면허등록 74,589명 중 여성 74,014, 남성 574명으로 증가하여 [4] 남성치과위생사 수가 여성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들의 직업으로 인식되던 직업에 들어감으로서 여성들과 함께 적응하고 직무에 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고하고 있다[5]. 이처럼 성별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 가는 과정상 직무만족이나 감정노동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직무의 관련요인 및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상태 즉 심리적 만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직률이나 직무스트레스,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6]. 과거 치과외사의 단순한 보조자로서 기술과 기능만으로도 역할을 수행하던 치과위생사의 역할도 예방, 교육, 경영 등 그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변화하고 있다[7]. 이러한 요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심화시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준다[8].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조직원이 가까운 미래 어떤 시점에 현재 직장에서의 영구히 떠날려는 주관적인 가능성을 자신이 추정하는 의지를 말한다[9]. 이러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감정노동도 있으며 감정노동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감정노동은(emotional labor)은 자신의 감정을 직무나 조직에 요구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서 고객이 요구하는 기대에 따라 특정한 감정만을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생기는 감정적 혼란 상태를 의미한다[11]. 치과위생사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치위생 업무와 더불어 상담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자심의 감정을 통제하고 환자에게 항상 웃는 표정으로 봉사하는 직업이다[12]. 또한 의료에 대한 의식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됨에 따라 환자들은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일반인보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은 더욱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13]. 지금까지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14,15],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16,17],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감정소진, 이직의도에 대한 논문[18], 남자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1]는 다수 수행되어졌으나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의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외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성별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와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차이와 분석하였으며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과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알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대구, 경북지역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정 수는 G\*Power 3.1.3을 활용하여 Effect size (효과크기) 0.2,  $\alpha=0.05$ , 검정력( $1-\beta$ )=0.90에서 178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저조한 설문지 회수율과 불성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총 270부를 설문하여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한 총 259부를 분석하였다. 남성 48명, 여성 211명이며 전국적인 남성치과위생사 수가 여성보다 10% 이하인 것을 고려하여 10% 이상인 18.5% 를 표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조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작성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e by Gender (N=259)

Characterization	Division	Men N(%)	Female N(%)	$\chi^2$
Age	20-25	32(66.7)	117(55.5)	.089
	31-35	12(25.0)	47(22.3)	
	35<	4(8.3)	47(22.3)	
	Total N(%)	48(100)	211(100)	
career	1-5 year	33(68.8)	109(51.6)	.071
	6-10 year	11(22.9)	58(27.4)	
	10< year	4(8.3)	42(19.9)	
	Total N(%)	48(100)	209(98.9)	
working form	Responsible dental hygienist	10(20.8)	40(19.1)	.439
	Dental hygienist	38(79.2)	171(80.9)	
	Total N(%)	48(100)	211(100)	

Education	College	37(77.1)	147(69.7)	.200
	University	11(22.9)	64(30.3)	
	Total N(%)	48(100)	211(100)	
Marital Status	single	33(68.8)	137(64.9)	.388
	married	15(31.2)	73(34.5)	
	Total N(%)	48(100)	210(99.4)	
Types of dental institutions	hospital level	7(14.6)	18(8.5)	.155
	Clinic level	41(85.4)	193(91.5)	
	Total N(%)	48(100)	211(100)	
Number of employees	≤10	29(60.4)	173(82.0)	.005 *
	11-20	14(29.2)	29(13.7)	
	20<	5(10.4)	9(4.3)	
	Total N(%)	48(100)	211(100)	
income	<20 million won	17(35.4)	125(59.2)	.002 **
	20-25 million won	13(27.1)	48(22.7)	
	25 million won<	18(37.5)	35(16.5)	
	Total N(%)	48(100)	208(98.4)	
Drinking	Yes	37(77.1)	140(66.3)	.124
	No	11(22.9)	68(32.2)	
	Total N(%)	48(100)	208(98.5)	
smoking	Yes	13(27.1)	9(4.3)	.000 ***
	No	35(72.9)	193(91.5)	
	Total N(%)	48(100)	202(95.8)	

\*p<.05 \*\*p<.01

## 2.2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도구는 설문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치위생(학)과 교수 3인에게 검증하였으며 20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경력 등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건강생활행동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흡연과 음주도 조사하였다. 직무만족은 김[19]이 사용한 설문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0.880$ 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감정노동 도구를 호텔종업원의 감정노동의 측정하기 위해 김[20]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0.865$ 이었다.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s)는 서와 이[21]가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0.884$ 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모두

5점 척도이며 평균점수로 그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여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점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의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항목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남성치과위생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성

남성 48명, 여성 211명 총 259명의 치과위생사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25세가 남 32(66.7%)명, 여 117(55.5%)명으로 다른 연령보다 높았으며 경력은 남녀 모두 1-5년이 높았다. 직종은 책임치과위생사가 남 10(20.8%)명, 여 40(19.1%)명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전문대졸이 남 37(77.1%)명, 여 147(69.7%)명이다. 결혼여부는 남 33(68.8%)명, 연 137(64.9%)명이며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남 41(85.4%)명, 여 193(91.5%)명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는 11-20명과 20명 이상에서 남 19(39.6%), 여 38(18.0%)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원 수가 많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나타났으며.(p<.05), 수입은 2500만원 이상이 남 18(37.5%)명, 여 35(16.5%)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5). 음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흡연은 남 13(7.1%)명, 여 9(4.3%)명으로 남성이 높았다(p<.05).

Table 2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Transfe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Gender (N=259)

Characterization	Division	Men						Female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Degree of turnover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Degree of turnover	
		M(SD)	p	M(SD)	p	M(SD)	p	M(SD)	p	M(SD)	p	M(SD)	p
Age	20-25	2.95(.52)		2.63(.58)	.047	3.15(.99)	.001	2.93(.86)		3.03(.76)	.001	2.23(1.04)	
	31-35	2.83(.69)	.934	.74(.82)	*	3.87(.82)	**	3.13(.73)	.212	3.06(.59)	**	2.23(.99)	.448
	35<	3.00(.54)		1.83(.06)		1.75(.86)		3.12(.73)		2.59(.64)		2.02(.87)	
career	1-5 year	2.88(.52)		2.54(.59)		3.13(.98)		2.94(.78)	.003	2.99(.75)		2.30(1.05)	
	6-10 year	3.00(.70)	.802	2.86(.84)	.227	3.90(.88)	.005	2.90(.77)	**	2.85(.69)	.251	2.06(.78)	.147
	10< year	3.00(.00)		2.28(.57)		2.00(1.15)		3.40(.79)		2.80(.67)		2.00(1.09)	
working form	Responsible dental hygienist	3.22(.34)		2.71(.83)	.535	2.95(1.14)	.381	3.22(.76)	.095	2.78(.97)	.190	1.96(1.12)	.119
	Dental hygienist	2.84(.56)	.050	2.56(.61)		2.28(1.06)		2.98(.81)		2.95(.69)		2.23(.96)	
Education	College	2.97(.53)		2.60(.67)	.786	3.20(.95)	.852	2.92(.77)	.006	2.92(.72)	.977	2.27(.97)	.038
	University	2.74(.55)	.228	2.54(.64)		3.27(1.47)		3.25(.84)	**	2.92(.72)		1.96(1.03)	*
Marital Status	single	2.89(.58)		2.67(.66)	.231	3.33(.95)	.279	2.95(.83)	.122	3.00(.72)	.059	2.32(1.04)	.006
	married	2.97(.45)	.658	2.42(.65)		2.96(1.30)		3.13(.80)		2.80(.68)		1.93(.85)	**
Types of dental institutions	hospital level	2.74(.76)		2.85(.65)	.262	3.14(1.06)	.843	3.03(1.39)	.945	2.77(.95)	.344	2.33(1.49)	.512
	Clinic level	2.95(.50)	.356	2.55(.66)		3.23(1.09)		3.01(.73)		2.94(.69)		2.17(.94)	
Number of employees	≤ 10	3.01(.50)		2.47(.70)		2.84(.92)		2.92(.77)		2.88(.68)		2.25(1.02)	
	11-20	2.80(.45)	.339	2.78(.51)	.304	4.14(.90)	.000	3.38(.81)	**	3.13(.96)	.226	1.87(.82)	.098
	20<	2.72(.93)		2.75(.77)		2.80(.83)		3.66(.70)		2.96(.27)		1.83(.93)	
income	<20 million won	2.88(.70)		2.75(.64)		2.97(.81)		2.96(.80)		2.94(.73)		2.19(1.02)	
	20-25 million won	3.10(.32)	.340	2.68(.72)	.204	3.57(.81)	.315	2.97(.76)	.175	2.89(.70)	.911	2.25(.93)	.863
	25 million won<	3.82(.49)		2.37(.61)		3.21(1.39)		3.24(.83)		2.95(.74)		2.12(1.00)	
Drinking	Yes	2.95(.58)		2.62(.63)	.570	3.20(1.18)	.852	3.01(.81)	.739	2.99(.72)	.040	2.30(1.03)	.016
	No	2.81(.39)	.483	2.49(.77)		3.27(.64)		3.05(.79)		2.77(.70)	*	1.94(.88)	*
smoking	Yes	2.53(.49)	.002	2.44(.27)	.349	3.88(.96)	.008	3.31(.48)	.271	2.82(.32)	.679	2.05(.84)	.702
	No	3.06(.49)	**	2.35(.75)		2.97(1.02)	**	3.00(.81)		2.93(.73)		2.18(1.00)	

\*p<.05 \*\*p<.01

### 3.2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의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직무만족은 연령에서 남성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성은 20-25에서 다소 낮았다. 경력은 남성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성은 10년 이상이 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직종은 남성과 여성 모두 책임치과위생사인 경우 높았다. 학력은 남성은 전문대졸이 다소 높았으며 여성은 대학졸업이 3.25로 높게 나타났다(p<.05). 결혼여부는 기혼이 남성과 여성에서 다소 높았다. 치과의료기관은 남성이 의원급에서 다소 높았지만 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직위 수는 남성은 10명 이하

에서 높았으며 여성은 20명 초과에서 3.66으로 가장 높았다(p<.05). 수입은 남성 여성 모두 높은 경우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는 남성 여성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흡연은 남성에서 금연에서 3.06으로 높았으며(p<.05), 여성도 금연에서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서 감정노동은 연령에서 35세 이상에서 남성 1.83, 여성 2.59로 연령이 많은 경우 낮게 나타났다(p<.05). 경력은 남성과 여성이 10년 이상에서 낮았다. 직종은 남성은 책임치과위생사에서 다소 높았으며 여성은 치과위생사가 다소 높았다. 학력은 남성과 여성에서 전문대와 대학졸업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기혼에서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료기관은 남성은 병원급에서 다소 높았으며 여성은 의원급에서 다소 높았다. 직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11-20에서 높았다. 수입은 남성은 수입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음주는 남성은 하는 경우 다소 높았으며 여성도 하는 경우 2.99로 높았다(p<.05). 흡연은 남성이 하는 경우 다소 높았으나 여성은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소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서 이직의도는 연령에서 남성은 연령이 35세 이상에서 1.75로 가장 낮았으며(p<.05), 여성도 연령이 35세 이상에서 낮았다. 경력은 10년 초과에서 낮았다. 직종은 남성은 책임치과위생사가 높았으며 여성은 치과위생사인 경우 높았다. 학력은 남성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전문대졸이 2.27로 높았다(p<.05). 결혼은 남성은 미혼이 높았으며 여성도 미혼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p<.05). 치과의료기관은 남성 여성 큰 차이가 없었다. 직원 수는 남성은 11-20명에서 4.14로 가장 높았으며(p<.05), 여성은 10명 이하에서 높았다. 음주는 남성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성은 하는 경우 2.30으로 이직의도가 높았다(p<.05). 흡연은 남성이 하는 경우 3.88으로 높았으며(p<.05), 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3.3. 성별의 따른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성별에 따른 차이점은 Table 4과 같다. 분석에 앞서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상관분석 결과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5), 감정노동과 이직의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5). 즉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며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높은 결과는 나타난 것이며 Table 3과 같다. 성별의 따른 직무만족 전체 평균은 3.00이며 여성이 3.02로 남성 2.92보다 다소 높았

다. 감정노동의 전체 평균은 2.86이며 여성이 2.92로 남성 2.59보다 높았다(p<.05). 이직의도 전체 평균은 2.37이며 남성이 3.21로 여성 2.18보다 높았다(p<.05).

Table 3.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Degree of turnover (N=259)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Emotional labor	.091 (.145)	
Degree of turnover	-.356** (.000)	.196** (.002)

\*p<.05 \*\*p<.01

Table 4.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turnover characteristics by gender (N=259)

Characterization	Total average	Men M(SD)	Femal M(SD)	p (F)
Job satisfaction	3.00 (.76)	2.92 (.66)	3.02 (.80)	.414 (.670)
Emotional labor	2.86 (.72)	2.59 (.66)	2.92 (.72)	.004* (8.479)
Degree of turnover	2.37 (1.09)	3.21 (1.07)	2.18 (1.00)	.000** (40.579)

\*p<.05 \*\*p<.01

3.4. 근무자 수, 수입, 직무만족과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남성 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0.22배 감정노동은 적었으나 이직 의도는 3.9배로 높게 나타났다(p<.05). 근무자의 직원 수는 10명 이상이 2.7배로 높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원 수가 많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turnover, number of employees, income and smoking by gender (N=259)

Independent variable	B	The standard .error	p	Odd Ratio
(Constant)				
Job satisfaction	.513	.308	.096	1.670
Emotional labor	-1.486	.359	.000**	.226
Degree of turnover	1.372	.262	.000**	3.944
Number of employees (≤10:0, 10<:1)	1.006	.473	.034*	2.735
Income(≤25 million won:0, 25 million won≤:1)	.510	.407	.210	1.666
Smoking(NO:0, Yes:1)	1.131	.642	.078	3.099

\*p<.05 \*\*p<.01 subordination variable: Gender(Men:1) Cox & Snell R<sup>2</sup>: .261 Nagellerke R<sup>2</sup>: .421

#### 4. 고찰 및 제언

직업의 특성과 직무환경은 근로자의 삶과 일상에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2]. 치과위생사로서 여성들이 주로 근무를 하는 치과 의료기관도 직무환경과 직무의 내용이 다양하여 직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23].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치과위생사도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근무하면서 겪는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의료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남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융합적 상관성을 검증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남성치과위생사에게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려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259명 중 남성 48(18.5%)명, 여성 211(81.5%)명이었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직원 수, 수입, 흡연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직원 수가 많은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수입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2016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3.4임을 보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1위이다[24]. 남녀의 임금차이는 우리나라의 성별차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남성의 경우 육아나 가사일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에 비해 적어 지속적인 임금이 상승하였을 것이고 업무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도 사료된다. 흡연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최와 김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25]. 흡연은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구강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치과위생사로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직무만족은 남성은 흡연에서 여성은 경력, 학력, 직원 수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남성은 흡연율이 낮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윤[26]의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흡연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직무만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흡연율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은 경력이 긴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류[14]도 경력이 길어질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경력이 길어질수록 근무환경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적

응도가 높아져 마음이 안정되고 보람도 느끼게 되어 직무만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력은 높은 경우 직무만족이 높았다. 김과 권[1]은 학력이 높은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낮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음의 상관관계임을 보고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이 높아지고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직무만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은 직원 수는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 김과 권[1]은 의료기관의 종류가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인 경우 직무스트레스는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즉 직원의 수는 병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여 전반적으로 직원 수가 많은 병원급이 직무만족도가 낮아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직원 수가 많으면 조직의 규칙이나 일의 분담도 조직적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진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직무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감정노동은 남성은 나이에서 여성은 나이와 음주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적을수록 감정노동이 높게 나타났다. 정과 한[18]도 나이가 적을수록 감정노동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근무경력이 적은 나이에서는 여러 가지 근무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근무경력이 많은 나이보다 부족하여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은 음주를 하는 경우 감정노동이 높았다. 이는 윤[27]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며 하[28]는 음주와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감정노동도 감정 스트레스이며 높은 감정노동은 음주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이직 의도는 남성은 나이, 직원 수, 흡연에서 여성은 학력, 결혼, 음주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남성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윤과 이[29]와 정과 한[18]의 결과도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나이가 많은 경우 현 직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가 쌓여 안정이 되어 있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함으로써 격여야 되는 새로운 변화의 두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이직의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은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20명 초과보다 중간층인 10-20명인 경우 이직의도가 높았다. 여성은 유의성은 없었지만 10명 이하인 경우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다. 직원 수는 직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김과 권[1]이 남자치과위생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원급, 병원급, 종합(대학)병원급 중 이직의도가 의원급보다 병원급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외[16]는 의원급인 경우 병원급 이상보다 이직 경험이나 이직의도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김과 권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두 연구의 차이점은 김과 권은 남자치과생사만을 대상으로 이 외는 남녀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여성치과위생사가 대부분이다. 직원 수에 대한 이직의도가 성별에 따라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대한 정확한 원인이 불명확하여 향후 이를 위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은 흡연을 하는 경우 이직의도가 높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흡연율이 높으므로 이직의도도 높다고 판단된다. 여성은 전문대졸업보다는 대학졸업이 이직의도가 낮았다. 류[14]는 전문대졸업보다는 대학졸업이 직무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직무만족이 높은 대학졸업이 이직의도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은 미혼인 경우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윤과 이[29]도 미혼이 이직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나이와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혼의 나이가 기혼보다 전반적으로 적을 것으로 고려할 때 나이가 많은 경우 경력이 높다는 것을 가정할 때 현 직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가 쌓여 안정이 되어 있을 것이며 이직에 의한 변화에 두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가정이 있는 기혼에 비해 미혼은 이직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은 음주를 하는 경우 이직의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에서는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에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노동이 높았다. 류와 군[30]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노동 다양성이 더욱 높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적 문화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감정노동의 기대치과 높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31] 감정노동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 이직 의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높았다. 윤과 이[29]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직의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동일하였지만 손[32]은 여성이 이직의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직 의도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과위생사는 여성들의 직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직업으로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많은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남성치과위생사가 일하기에 좋은 분위기와 환경이 되어가고 있

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남성 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여성에 비해 감정노동은 -0.22배 적었으나 이직 의도는 3.9배로 높았다. 직원 수는 10명 이상이 여성에 비해 2.7배로 직원 수가 많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남성 치과위생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성별에 따라 특성이 다름을 인정하고 남성과 여성에서 다른 수입이나 감정노동의 원인도 파악하여 남성치과위생사와 여성치과위생사가 함께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져 이직의도를 줄이는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여성치과위생사가 주로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남성치과위생사가 늘어가는 현 지점에서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상관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의 빈도에서 여성의 수에 비해 남성의 수가 적으며 일반적인 특징을 다양한 변수들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지 못한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 남성 48명, 여성 211명 총 259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융합적인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유의성 있는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인 특징은 직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원 수가 많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수입은 2500만원 이상이 남성이 높았다.
2. 남성인 경우 직무만족은 금연에서 높았으며 감정노동은 높은 연령이 낮았다. 이직의도는 연령 35세 이상이 가장 낮았으며, 직원 수 11-20명에서 가장 높았다. 흡연은 하는 경우 높았다.

3. 여성인 경우 직무만족은 경력 10년 이상, 대학졸업, 직원 수 20명 초과에서 가장 높았다. 감정노동은 높은 연령이 낮았으며, 음주가 높았다. 이직의도는 전문대졸, 미혼, 음주가 높았다.
4.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상관분석 결과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는 음의 상관관계, 감정노동과 이직의도는 양의 상관관계이며 감정노동 전체 평균은 2.86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직의도 전체 평균은 2.37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5. 남성 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0.22배 감정노동은 낮았으나 이직 의도는 3.9배로 높았다. 직원 수는 10명 이상이 2.7배로 높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차이점의 원인을 규명하고 직무만족을 높이고 감정노동과 이직의도를 줄여 성별에 차이가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것이다.

## REFERENCES

- [1] Y. K. Kim & H. J. Kwon. (2016). The Influence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for Male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6(2), 142-149. DOI : 10.17135/jdhs.2016.16.2.142
- [2] E. J. Park.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e and Female Nurse*.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 [3] S. S. Lee. (2010). *Effects of males of hospital organization culture o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athoic University.
- [4] K. H. Min. (2018). *2018 Year Book of the Korean Dentistry*.
- [5] K. J. Lee & M. Y. Kim. (2014).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26(1), 46-57.
- [6] S. J. Chon & I. N. Kim.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us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 Secret Stud*, 15, 75-96.
- [7] B. W. Kang. (1999). *A study on the causal factors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Korean dental hygienists c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8] S. H. Jeong, Y. G. Seo, U. Y. Son, Y. H. Choi & G. B. Song. (2005).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of dental auxiliaries. *J Korean Acad Oral Health*, 29, 281-292.
- [9] H. S. Park. (2011).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Determinant Factors of Nursing home Worker's Turnover*.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 [10] H. S. Kim.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hotel employees. *J Korean Acad Soc Tour Mang*, 19, 203-225.
- [11] A. R. Hochschild.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CA).
- [12] S. U. Yoon & I. S. Nam. (2011). Relations between emotional labor and sleep health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1(3), 243-249.
- [13] M. S. Joung & K. J. Kim.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and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nurse. *Korean J Hosp Manag* 11(4), 1-18.
- [14] H. G. Ryu. (2017).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7(2), 168-174. DOI : 10.17135/jdhs.2017.17.2.168
- [15] S. R. Lim & J. H. Park. (2019).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 123-135. DOI : 10.22156/CS4SMB.2019.9.1.123
- [16] M. J. Lee, Y. N. Kim & S. Y. Lee. (2015).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motional Lab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5(2), 113-118. DOI : 10.17135/jdhs.2015.9.15.2.113
- [17] H. J. Choi, H. J. Bang, E. Y. Chung & Y. J. Seo. (2014). Factors That Affect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in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4(3), 295-301.
- [18] K. Y. Jeong & O. S. Han. (2015). A Study on Emotional Labor, Emotional Burnout,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 15(3), 280-286. DOI : 10.17135/jdhs.2015.9.15.3.280



[19] S. E. Kim. (2012).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ing Job Satisfaction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Labor & Job Expertise*. doctoral thesis. konkuk University.

[20] M. J. Kim. (1988). Research Articles : Effects of the Hotel Employee's Emotional Labor upon the Job-related Attitudes,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1(2), 129-141.

[21] E. H. Seo, M. S. Lee. (2002).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J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7(3), 155-170.

[22] J. W. Yoo, I. H. Song. (2016). The Effects of Quality of Employment on the Depressive Mood among Paid Workers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conomic Status.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44(1), 106-133.

[23] S. Y. (2008). *Sociopsychological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and the relevant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24] H. J. Kwak & E. Y. Choi. (2018). Effects of Work Characteristics on Paid Workers' Job Satisfaction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97(2), 103-140.

[25] E. S. Choi, H. Y. Kim. (2017). Gender-related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status and periodontal diseases: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pproach. *The Korea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and Oral Health*, 41(2), 122-128.

[26] S. H. Yoon, J. Y. Bae, S. W. Lee, K. E. An & S. E. Kim. (2006).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Depression, Drinking and Smoking among Korean Men. *Korea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19(1), 31-50.

[27] S. U. Yoon. (2020).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motional Labor of Dental Workers Impact of Convergence on Job Satisfaction. *Convergence Society for SMB*, 10(1), 187-194.  
DOI : 10.22156/CS45MB.202010.01.187

[28] J. Y. Ha. (2010). Drinking Problems,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22(2), 182-189.

[29] M. S. Yoon & H. J. Lee. (2015).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Support between the Anger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Employees. *Korean Academ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2(1), 249-269.

[30] S. I. Ryu, S. Kwon. (2018). The Effect of Public Sector Workers' Emotional Work on Job Stress -Focusing on the Fire Fighters-. *Korean Society for Convergence Science*, 7(3), 153-167.

[31] H. Park. (2006). *Emotional labor, review with feminism approach*. In-mul & Sa-sang, 103, 84-96.

[32] U. S. Son. (2012). *The effect of hospital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onflict*. The doctor's degree, Wonkwang University.

윤 성 옥(Sung Uk Yoon)

[정회원]



- 2003년 8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위생과학과 (보건학석사)
- 2013년 8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교육, 공중구강보건 관련
- E-Mail : sunguk3794@naver.com

성 미 애 (Mi-Ae Sung)

[정회원]



- 2013년 8월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18년 2월 : 영남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수성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실습, 감염관리학
- E-Mail : smarose1104@hanmail.net